

이스란 제1차관, 기업·전문가와 함께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방안 논의

- AI 복지·돌봄 혁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6일(수) 오후 4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및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사람 중심의 복지와 돌봄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부는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복지·돌봄 영역의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AI 복지·돌봄 혁신 전문가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020)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044-202-3008)



□ 추진 배경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 쏠 분야 AI 기반 혁신 기대
 -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반 혁신을 위해 기업 및 학계 등
각계 의견 수렴 및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 간담회 개요

- (일 시) '25. 8. 6.(수) 16:00 ~ 19:00
- (장 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서울 중구)
- (참 석) 총 14명
 - (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주재), 복지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등
 - (기업인) 나교민 이사, 옥상훈 이사(네이버클라우드)
 - (전문가)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 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대학원장(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유관기관) 박미야 본부장, 김성훈 본부장(한국사회보장정보원)